

일제의 굴종서 벗어나 해방을 꿈꾼 여성들

일제에 맞선 페미니스트

이임하 지음

우봉은, 김명시, 조원숙, 강정희, 이경희, 이계순, 이정선.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신문·잡지 등에 실린 한 줄 기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역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생애를 되살려냈다. '억압과 멸시, 굴종에서 벗어나 해방을 꿈꾼 여성들'이라는 부제를 붙인 신간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일상에 맞선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조선의 페미니스트'(2019년)에 뒤이은 두 번째 작업이다.



일제하 여성운동가들은 항일 무장투쟁과 청년운동, 사회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20년대 후반 서대문형무소 전경. (서울역사아카이브 제공)

에 불법으로 체포돼 부형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중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

경남 김해 출신인 우봉은은 1913년 북간도로 이주해 명동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20년 1월,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간도 비밀결사단체 '철혈 광복단' 최봉설을 치료하고 보호했다. 30대에 조선으로 돌아와 불교여성청년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1948년 남한 단독선거 반대운동을 전개한 자주여성동맹 부위원장을 맡아 남북회담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이후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계순(본명 이말순)은 1933년 서대문형무소를 나온 후 경성 지방법원에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했다. 복역일을 하루 3원씩 계산해 1360원을 청구한

군정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정선은 '미래의 로자 룩셈부르크'로 불린 인물이다. 제주도 대정 공립보통학교에 다닐 때 일본인 교장의 민족 차별적 폭언과 구타 등에 항의해 동맹 휴학을 벌였다. 동맹휴학을 준비하다 적발된 숙명여고보 조사과정에서 독서회를 지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감한 후 일본 고베에서 약학을 공부하던 중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언도 받았다.

저자는 신간 '머리글'에서 여성 7명의 생애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든 역사는 봄날처럼 따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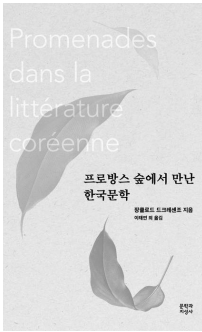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독자로 평론가로... 프랑스인 시선으로 들여다 본 한국소설

프로방스 숲에서 만난 한국문학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지음, 이태연 외 옮김

"한국에서 한국어로 씌어진 소설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그 소설을 읽은 프랑스인이 독자로서, 번역자로서, 또한 평론가로서 작품을 품어 안듯, 쓰듯, 파헤치듯,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번역자 이태연의 말처럼 '프로방스 숲에서 만난 한국문학'은 익숙한 한국 소설을 '외부자'의 또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본 책이다.

책의 저자 장클로드 드크레센조는 한국과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에 한국학을 창설, 한국학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문학 공동 번

역가로 활동하며 한국문학 전문 웹진 '글마당'과 한국문학 전문 출판사 드크레센조를 창립해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출간하고 있다. 또 한국문학번역원 공로상, 문화부가 수여한 '프랑스-한국상'도 받았다.

코로나 19팬데믹의 봉쇄 상황에서 한국문학을 다시 읽기 시작한 그는 "한국문학이 신기하게 현대의 정서와 공명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하며 한국문학 속에 나타난 다채로운 '작'의 형상을 추적한다. 마치 '한국소설 선집(選集)' 같은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소외, 가족 붕괴, 욕망과 절제 등 다양한 주제를 드러내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정성스레 읽어낸다.

책의 1부 '나와 나의 작', 3부 '이후의 세상'에서는 김애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박민규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편혜영의 '재와 빨강'을 통해 "고독, 기술 중독, 소통의 어려움, 의식과 정체성의 위기 같은 익숙한 형태의 적들"을 발견해낸다. 또 한국 정춘의 키워드가 된 욕망과 절망, 자살을 그린 강장명의 소설 '표백'의 탄생 배경을 분석한다.

그밖에 이인성의 장편소설 '미쳐버리고 싶은, 미쳐

지지 않네', 은희경의 단편소설 '아내의 상자', 한유주의 '막'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이미 전자 '다이나미데스'의 물통-이승우의 작품 세계를 통해 이 작가의 장편소설 6편을 유입 문학, 철학과 연결해 분석한 그는 이번 책에서는 이승우의 또 다른 장편 '강탕'과 단편소설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을 분석한다.

그밖에 한국의 대표작가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 '개밥바라기 별', '수인1·2' 등 다양한 소설을 넘나들며 그의 작품 속 '관대함'의 미덕을 추적한다.

2부 '막간극'에는 한국 소설과의 만남과 한국에 체류하며 겪었던 일들이 담겼다.

한국에 올 때면 언제나 찾았던 인사동 포장마차를 "아주 강렬하고 진실하고도 인위적인 사회성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배제될 걱정 없이 비애가 방출되는 곳"이라 추억하고, 이인성과 식사를 하며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점점과 현실 속 점점을 헛갈린 일화 등을 소개한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당신은 나를 이방인이라 부르네=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노동자 A씨, 배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선원이자 고등학생 B씨, 전쟁과 공포, 직장인과 사직서 등을 소재로 시를 창작한 C씨 등. 주어진 하루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중 '이주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이 사회 속에서 겪는 공포는 크다. '이방인'이라 불리는 약자들의 공통적인 고통을 조망화한다. 원앙어선, 전쟁, 노동 문제 등을 통해 약자의 권리 신장을 고민하고 국가, 사회의 책무를 논의한다. 〈후마니티스·2만 원〉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라=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자체, 인과 등에 주목하기보다 '사람'에 집중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심마리를 풀게 한다. 저자는 필드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솔루션 코치들이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것을 지적하며 사람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코칭 대화를 새롭게 풀어 나가는 다섯 가지 방법을 둘러보는 데 적극적 재생, 코칭 등 흥미로운 개념들을 리뷰한다. 〈이콘·1만6800원〉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현대인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짜 나'를 내세우곤 한다. 이들은 진정한 나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막아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성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거짓된 나를 벗어 던지고 근원적 나를 마주하는 법을 알려

준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타인에게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도록 돕는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한다. 〈생각의날개·1만7500원〉

▲꽃은 피어서 말하고 잎은 지면서 말한다=시를 통해서 '소리 없는 소리'를 탐색해 온 신작 시집. 시인은 언어, 말과 관련된 모색을 심층적으로 이어 나간다. 수록작 '경마장의 얼룩말' 등 얼룩말 연작 시리즈에는 진중한 사유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풍자가 깃들여 있다. 상징적 체계들로 가득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발화한다. 〈걷는사람·1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응가 말놀이=아동들의 언어개발 단계에 어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말놀이책.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등 가사로 알려진 동요를 개작해 공룡, 응가 등 재치 있는 노랫말로 바꿔 실었다.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삽화까지 곁들여져 있으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성어, 의태어가 포함돼 있다. 언어학습의 거부감을 낮추고 놀이하듯 읽을 수 있다. 〈모든요일그림책·1만4000원〉

▲마음쫄자=아이의 가슴에 말하는 요술 줄자가 생겼다.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를 측정하는 줄자는 잔소리쟁이 엄마, 옆집 호랑이 할머니, 어제 다했던 친구 민수와 나 사이의 거리를 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일까? 타인과는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는 좋지 않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랏빛소어린이·1만5000원〉

▲금지구역에 가고 싶어=가치 말라는 곳은 왜 가고 싶은 걸까? 무엇이든 적극적인 '나서기 삼총사'는 동네에 문을 열어 주는 곳이든 방문한다. 연구소장은 잠을 자면 공부도 저절로 된다고 설명하고, 아이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